

용담호 맑은물 보전 탄력

진안군, 하수도 신규사업 국비 355억원 확보

진안군은 2017년도 하수도분야 신규 사업에 총 355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용담호와 청정진안 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6기 들어 진안군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용담호를 비롯한 섬진강 상류의 맑은 물 보전으로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하수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항로 군수는 용담호 수질 등으로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발품행정으로 가장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용담호는 전북도와 충남도 등 7개 시·군 150만명의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을 위해 진안군에서는 10년간 군민자

율수질관리로 수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용담호 주변과 상류지역 197개 마을 중 83개 마을이 하수처리시설이 미설치되어 생활하수가 용담호로 직접 유입되어 진안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용담호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에서는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수질 개선으로 맑은 물 보전을 위해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발품행정으로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2017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은 3건에 355억원으로 ▲ 동향 외금·상전 지사·정전 용정지구와 마령지구 등 2건의 마을하수처리장(17개 마을)을 설치하고, 213억원으로 ▲안천·부귀·백운 운동지구 하수처리구역(8개 마을) 하수관로 설치 142억원을 확보



했다. 군은 2016년도 확보한 3건 159억원과 2017년도 신규 사업 3건 355억원 등 2019년까지 총 514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88%까지 향상시켜 용담호 맑은 물 보전과 주민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청정환경 보전을 목표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 확충을 통해 주민 주거환경개선과 용담호 맑은 물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앞으로도 하수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성황리 마쳐

볼거리·즐길거리·체험거리 등 관광객 시선 사로잡아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 제6회 완주와일드푸드축제가 수많은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됐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는 '즐거움에 날아오르다'는 주제로 건강로컬푸드 마을음식, 물과 불을 이용한 각종 와일드 체험 등 와일드푸드 축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야생의 즐거움과 로컬푸드의 건강함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다.

군은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하는 '로컬푸드 1번지 건강로컬푸드 축제'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방식도 바꿨다.

기존 읍면별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방식에서 일괄 있는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별 판매부스 운영방식으로 전환해 산업형 관광축제로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통합콜센터, 셔틀버스 확대 및 축제해설사 배치, 센터공간 확대, 물품보관소 및 카트대여소, 음식안내소 운영 등을 통해 관광객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계란껍질발효, 와일드 수상 줄다리기, 물놀이터, 추억의 7080 봉송야화당, 고깃병 물고기잡기, 물고기 통구이 등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 프

로그램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해 독특한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아울러 해마다 새로운 주제로 구성되는 와일드놀이터는 전년도 통나무놀이터 컨셉에서 정글집과 짙라운 컨셉으로 구성, 운영해 어린이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와 함께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답게 타 축제와는 차별화된 운영으로 간소한 개막식과 더불어 '완주의 어린이들이 꿈꾸는 와일드푸드축제' 희망영상을 상영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박성일 군수는 "제6회 와일드푸드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10만 완주군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협 역량강화 팸투어

인생학교 '더 라이프스쿨' 회원

창업가, 사회 리더가 참여하는 인생학교 '더 라이프스쿨' 회원 60여 명이 팸투어를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장수군을 찾았다.

이번 팸투어는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원)가 농촌체험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등 실질적인 농촌체험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관광 협의회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더 라이프스쿨'은 2015년 일본에서 재인교포 시즈미 한 에이지(다큐멘터리 HAPPY 제작자)가 다큐를 통해 우울한 현대인들의 삶을 회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하며 실천 방법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미국, 영국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6년 한국편 '더라이프스쿨'은 장

수군의 농촌 관광지를 소개하고 아름다운 산촌 마을과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더 라이프스쿨' 장수 캠퍼스 강연에는 KBS 아나운서 정용실 아나운서 등 13명의 강연자와 50명의 창업가, 문화예술인, 기업가 등 사회 리더들이 대거 참여해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장수군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전안군청 전학산업과
063-430-2951



무주군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행사 참가자들이 공연하고 있다.

무주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성황

3백여명 참석... 소통·화합의 장 '눈길'

무주군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행사가 지난 24일 무주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다문화지원센터(센터장 이영재)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주군민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백경태 도의원을 비롯한 무주군 다문화가족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통춤자조모임과 반디수화합창단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기념식과 패션쇼, 장기자랑, 운동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무주읍

정순옥 씨(1999년 입국, 필리핀 대표)와 김태희 씨(2012년 입국, 베트남)가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는 모범상을, 무주군청 강미경 여성복지 담당이 감사패를 받았다.

황정수 군수는 "이 자리가 가족의 연을 맺고 무주군민이 된 여러분을 격려하고 서로가 마음을 나누며 행복을 일구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가족 행복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 뛰어드는 여러분께 감사한 만큼 더욱 힘써 사는 무주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의 다문화가족 수는 현재 186가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청소년 비만탈출교실 운영

체질분석·영양·운동 진행

무주군이 진행하고 있는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비만 탈출 프로그램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비만 탈출 프로그램은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높이는 청소년 비만을 한의약적으로 관리해 건강행태나 식습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다.

무주군은 관내 희망학교 중 선정한 안성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까지 8주 간 건강기초검사와 체질분석, 사상체질 개선을 위한 교육, 한의약적 진료, 기공체조 및 영양교육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무주보건의료원의 한의사와 방문보건팀(비만 침 시술, 비만관리 상담 등 진행), 통합건강증진팀(개인별 체지방 검사, 식이 및 운동지도)

이 함께 출장할 예정이다. 무주보건의료원 박인자 방문보건 담당은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져 만성질환과 정신적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한의학적 진료와 운동,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비만 탈출 프로그램은 사춘기 청소년들의 건강과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25일까지 평화요양원과 삼김요양원, 한마을요양원, 안성요양원 등 노인요양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노래교실도 운영을 한다.

매주 한 번씩 총 10번에 걸쳐 진행되는 노래교실은 노인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햇살 가득한 노인복지센터와 무주9887 노인복지센터 등 2곳에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별블로그

완주군, 2016 화랑훈련 실시

완주군은 완주대대, 완주경찰서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인 '2016년 화랑훈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비상사태와 연계된 작전계획 시행 절차를 숙달하고, 지역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통합방위태세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후방지역의 적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한 훈련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 테러대비훈련 등도 진행된다.

완주군은 부군수를 통합방위지원본부장으로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종합상황실과 7개 지원반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도 함께 운영키로 했다.

김홍기 부군수는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안보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안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화랑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민·관·군·경이 합심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찾아가는 안전도우미 교육

장수군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장수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관내 이장과 부녀회장 등 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도우미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안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울 수 있는 안전도우미 양성으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의 대처 능력과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날 '일상 생활 속의 안전'을 주제로 안전도우미 역할 안내, 교통·보행안전, 소방·전기·가스안전, 심폐소생술 등 분야별 교육이 실시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도우미 양성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재경 완주군민회 초청 완주 발전 '소통의 장'

완주군은 23일 와일드푸드 축제를 맞아 재경 완주군민회(서울·경기·인천 지역) 회원 50여명을 초청해 완주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와일드푸드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완주 군정과 정책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완주공장 및 하이트팩 등 지역내 소재 기업들을 견학하고, 대둔산과 상관 편백산, 비봉 힐스타 등 등 고항의 주요 문화, 관광자원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회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사회소통기금으로 쾌척해 고항 발전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김용준 재경완주군민회장은 "1박 2일 동안 고항 완주에서의 시간이 너무 즐겁고 뿌듯했다"고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 농촌복지발전방향 심포지엄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김진)은 지난 22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장수군 농촌복지현황과 발전방향을 위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심포지움은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와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이 공동주관한 것으로 장수군 사회복지실무자, 관계공무원, 학생,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옥채 교수의 주제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장수군 지역 내 단체장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장수군지역의 농촌복지현황을 파악하고, 실무자의 토론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통해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을 하였다.

김진 관장은 "심포지움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어르신 및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복지증진에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